

# 일본 재흥(再興)의 개국 담론과 글로벌 일본인론: 국제인과 글로벌인재 육성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경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일본의 국제인 캠페인과 글로벌인재 육성 정책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전 지구화와 포스트 버블 시대에 일본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와 국민 정체성 기획을 이해하고자 한다. "90년대의 좌절"을 겪으며 전 지구화의 시대로 밀려들게 된 일본에게 있어 시장중심의 경제 시스템의 도입과 대대적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가시적인 사회 변화는 새로운 위기감과 불안을 고조시켰다. 이는 포스트 버블 일본 사회의 정체성 위기와 기술적 정체, 내향 지향성, 인재부족과 같은 현재의 곤경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일본 정부가 전개해 온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책을 일본재흥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서의 '제3의 개국' 담론의 일부로 파악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과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일본인 양성을 목표로 한 국제인과 글로벌인재 정책 담론을 '글로벌 일본인론'이라고 부른다. 글로벌 일본인론은 전 지구화라는 시대적 국면에서 일본이 직면한 사회적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에서 '일본인임'을 재정의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설명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책 과정에서 파생한 국제인 캠페인과 특히 일본재흥을 위한 액션플랜으로서의 글로벌 인재 정책에 주목한다. 그리고 개발주의 시대의 일본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재였던 사라이만(일본의 정규직 화이트칼라 남성 노동자)에서 글로벌 주체로서의 기업가적 자아로의 인재 자질의 변화와 글로벌인재 정책의 대상이자 동시에 내향화하는 일본 사회의 현재적 곤경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청년(와카모노)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글로벌인재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는 국가주도의 국제화와 글로벌화 담론에 상존하는 '일본다움의 국경'과 정책 과정에서의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 정책이 노정하는 '현실적인 청년의 부재', 그리고 '기업친화적인 회사원 양성'이라는 목표가 일본의 글로벌인재 정책의 잠재력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제3의 개국, 국제인, 글로벌인재, 일본재흥, 글로벌 일본인론, 국가 정체성, 와카모노(청년), 고등교육 개혁

## I. 들어가며: 글로벌 일본의 곤경

1980년대에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던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이후부터는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정책 과제로서 본격 추진하

\* 유익한 심사평을 해 주신 두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였다(内閣府, 2002).<sup>1</sup> 하지만 최근의 가시적 지표는 지난 40년간의 국제화 및 글로벌화 정책이 무색하게 일본 사회가 처한 궁지와 위기의식을 드러낸다. 하락한 국제 경쟁력 지수는 세계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과 기술을 선도해 왔던 현재 일본의 경제적, 기술적 지체를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해외 유학 감소 그래프와 국민 의식 조사 결과는 일본인들의 “해외에 대한 무관심”이나 “자국의 틀 내에 안주”하려고 하는 ‘내향 지향성’과 국가의 ‘인재 위기’라는 사회의 우려를 가중시켰다(産業能率大学, 2017; 内閣府, 2019; 読売新聞, 2019).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의 전 지구화가 급속히 진행된 반면,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 이후 일본 사회가 내향화하고 있다는 인식은 “새로운 일본(新しい日本)”의 창출을 위한 사회적 담론과 정책을 요구하였다(内閣府, 2012). 이러한 분위기에서 “1990년대의 좌절”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경제 대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찾고 글로벌경제에 편입하기 위하여 글로벌인재의 육성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였다(21世紀日本の構想懇談会, 2000; 西村政子·趙彩尹, 2022: 13).

일본 정부는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채널로서 교육을 지목하며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교육 개혁과 영어교육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때문에 일본의 경제적 글로벌화에 필요한 글로벌인재상의 실현과 관련한 논의는 주로 교육(대학교육)과 언어 분야에서 다루어졌다(Chapple, 2014; Yonezawa, 2014; 日本再興戦略, 2013: 36; 祐乗坊ジョディ·由利, 2019; 松井一彦, 2020). 대학교육과 언어교육의 측면에서 1980년대 이후 국제화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일련의 정책적 시도는 일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일본 사회의 현재적 곤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사회문화적 맥락 위에서 국제화와 글로벌화의 정책 과정과 거지에서 파생한 일본의 인재 정책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일본 정부가 전개해 온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책을 일본재흥(再興)

<sup>1</sup> 이 글에서는 영어의 globalizaiton의 번역어로서 전 지구화와 글로벌화라는 단어를 혼용한다. 일반적으로, 이론적 맥락에서는 전 지구화라는 번역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일본 현지에서는 전 지구화라는 용어보다 영어와 한자어의 혼합어인 글로벌화(グローバル化)나 글로벌 정책(グローバル政策), 글로벌인재(グローバル人材) 등의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지의 맥락에서 언급할 때에는 현지어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하여 전 지구화 대신 글로벌화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서의 ‘제3의 개국(開國)’ 담론의 일부로 파악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 양성과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일본인 육성을 목표로 한 국제인(國際人)과 글로벌인재(グローバル人材) 정책 담론을 ‘글로벌 일본인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여기서 글로벌 일본인론은 전 지구화라는 시대적 국면에서 일본이 직면한 사회적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에서 ‘일본인임’을 재정 의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설명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책 과정에서 파생한 국제인 캠페인과 글로벌인재 정책에 주목함으로써 전 지구화와 포스트 버블 시대에 일본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와 국민 정체성의 기획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것이 일본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 내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고도성장기 일본을 상징하는 사라이만(회사원)형 인재에서 주체적이고 글로벌한 기업가적 주체로의 인재 자질의 변화와 글로벌인재 정책의 대상이자 동시에 내향화하는 일본 사회의 현재적 곤경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청년(와카모노) 세대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일본인론의 일부인 국제인과 글로벌인재 정책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II. 전 지구화와 일본의 개국(開國) 담론

### 1. 제3의 개국과 국제화·글로벌화 프로젝트

국제화와 글로벌화는 일본의 오랜 개국 담론의 일부다. 마쓰모토 켄이치(松本健一, 1994)는 미국 흑선의 내항(1853)에서 메이지 유신(1868)까지 15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본의 개국의 경험이 “이후 근대와 과정과 현대 일본인 정신의 원형을 형성했다”고 보았다(松本健一, 1994). 그에 따르면, 개국은 단순히 외교와 통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는 없었던, 유럽 주권국가 간에 형성된 역사적 카테고리로서의 “국제사회”에서 “전혀 다른 타자와 직면한 일본이 타자(근대 유럽)의 ‘문명’ 쪽으로 스스로를 열어 변혁해 나가려고 한 경험”이었

다(松本健一, 1994: 308). 따라서 일본에 있어 개국은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스스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丸山眞男, 1998), “섬나라의 일본인이 … 세계의 역사 안으로 강제로 이끌려 나와 근대화한 이후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스스로 사회를 변혁해야 하는 ‘숙명’”(松本健一, 1995: 1)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일본의 개국에의 여정은 19세기 말 메이지 근대화의 ‘제1의 개국’과 20세기 중반 2차 대전 후의 전후 민주개혁이라는 ‘제2의 개국’을 거쳐, 냉전 해체와 세계질서의 재편 그리고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후 새로운 일본 창출을 위한 ‘제3의 개국’ 논의로 이어져 왔다(松本健一, 1995: 44; 田中浩, 2003). 메이지 유신(1868) 이후 지난 150여 년 간 일본에 있어 개국은 근대적 국가체제의 성립과 확장 그리고 경제적 성공과 선진국으로의 진입처럼 일본이 국가적 곤경을 극복하고 부활하는 ‘긍정적’인 ‘자기변혁’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때문에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와 사회의 내향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포스트 버블 일본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제3의 개국 담론은 ‘일본재흥’의 염원과 결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 버블 일본의 경제 불황기를 가리키는 ‘잃어버린(失われた) 수십 년’은 경제 호황이 ‘완전히 사라진 상실(喪失)’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황기라는 ‘가지고 있던 것이 유실(遺失)’된 시간을 말하며, 따라서 언제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 또는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국은 타자(외국)와의 조우에서 비롯한 국가적 불안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불안은 일본의 자기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국가의 위기로 간주되었다(船曳健夫, 2010: 45). 외국과의 조우(개국)와 위기의 순간에 고조된 일본의 정체성 위기, 즉 일본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사회의 불안을 낮추기 위하여 국가 주도의 이야기 방식이 필요하였으며, 이것이 ‘일본인론’이었다(Befu, 1993; 松本健一, 1995; 船曳健夫, 2010: 39). 인류학자 후나비키 타케오(船曳健夫, 2010)는 대외적 위기에서 나온 이 일본이라는 의식이 일본의 국가모델을 구상하게 해 왔다고 주장하였다(船曳健夫, 2010: 27, 47).

개국은 흔히 근대화 시기의 역사적 국면을 설명할 때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전후 일본에서 개국은 다양한 맥락에서 정치경제적 수사로서 원용되어 왔다. 1986년 미국으로부터의 개방 압력에 직면한 나카소네 내각(1982~1987)

은 “세계에 일본을 열어 번영에 공헌하는 ‘국제국가 일본’의 건설을 선언하였다(中曾根康弘, 1986, 이하 볼드체 필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국제화를 국가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행정과 고등교육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해외에서의 국제협력과 국제교류에 집중했던 국제화의 정책 방향이 국내로 선회하여 1980년대 이후 국제화는 일본 사회에서 일상적 용어가 되었다.

한편 간 내각(2010~2011)은 2011년을 “헤이세이 개국 원년”으로 선언하며, “일본 젊은이(와카모노)의 내향적 경향과 일본의 폐쇄 상황을 타파하고 건강한 일본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일본의 명운을 걸고’ 정신적, 경제적 개국을 실현할 것”을 공언하였다(菅直人, 2011).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성장 일로에 있던 여러 아시아 국가와 미국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 투자의 자유화를 목표로 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에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이어 재출범한 아베 내각(2012~2020)은 TPP 참여를 개국의 시금석으로 삼아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견인차라는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安倍晋三, 2015).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 시도들은 전 지구적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의 “폐쇄성”을 넘어 사회를 변혁하고 일본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개국, 즉 일본의 국제화와 글로벌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末廣昭·園田茂人, 2012: 63).

제3의 개국 담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었지만, 한 마디로 전 지구화 과정에 놓인 일본의 대응 방식이었다(新保生一, 1994; 野村総合研究所, 2015). 1980년대 이후 제3의 개국 담론은 전 지구화 과정에서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가 확대되는 가운데 장기화하는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가치체계와 윤리 규범의 붕괴, 그리고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같은 경제적, 사회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가시화하였다. “90년대의 좌절을 겪으며 지구화의 시대로 밀려들게 된” 일본에게 있어 전 지구화로 촉발된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의 도입, 대대적인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실체적 변화는 새로운 위기감과 불안을 고조시켰다(Hermans and Hermans-Konopka, 2010: 21; 21世紀日本の構想懇談会, 2000). 1980년대 이후 전 지구화의 흐름에서 고조된 일본의 위기감은 새로운 일본 의식에 의거한 자기 정체성과 국가모델을 필요로 하였다.

## 2. 위기의 정체성과 글로벌 일본인론

19세기 메이지 유신(1868) 이후 근대 일본인임의 경계를 설명하는 주요한 틀은 일본인론이었다. 일본인론은 “일본인임(Japaneseness)의 소재, 즉 일본인의 문화적, 국민적 정체성을 아우르는 담론”으로서 그 핵심은 일본인의 문화, 사회, 행동, 사고방식 등을 독자적인 것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박규태, 2019: 112; Befu, 2001: 4). 일본인론의 내용은 타자를 설정하여 “일본과 일본 이외의 것 간의 차이”, 즉 일본적 양식의 예외성, 특수성, 독특성을 주장하며 일본(인)의 저력을 부각하거나 반대로 일본의 주변성이나 열등성을 강조하면서 ‘일본다움’을 구성한다(요시노, 2001: 103, 108; 船曳健夫, 2010: 25). 일본인론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일본 국내외에서 대량 생산되었고, 198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다. 일본인 및 일본문화의 특수성과 단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회의 내적 다양성을 간과했다는 평가에서부터 지배층의 보수적 통치 이데올로기나 내셔널리즘 텍스트라는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론은 근대 이후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반복하여 나타났다(요시노, 2001: 15; Mouer and Sugimoto, 1986; Befu, 1993).

국제인과 글로벌인재 담론은 전 지구화의 진전과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부상이라는 역사적 국면에서 등장하였다. 1980년대 대외적 압력에 따른 위기감과 1990년대 버블 경기 붕괴 이후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시장 의존적 경제체제의 확산과 국내 외국인의 증가는 일본의 사회적 긴장감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일본인론이 국가의 위기와 불안에 대응하여 일본(인)임을 설명하고자 하는 틀이라고 할 때(船曳健夫, 2010: 25, 39), 국제인, 글로벌인재 정책은 전 지구화 과정이 초래한 위기감 속에서 글로벌 일본이라는 국가모형을 제시하고 일본인임에 관한 설명, 즉 일본인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글로벌 일본인론’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일본인론의 관점에서 국제인 양성은 글로벌화하는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提高)하고 그동안 폐쇄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일본인의 정체성을 전환하기 위한 국가 통치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글로벌인재 육성은 200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서 급속하게 전개된 신자유주의적 시장 중심 체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사회문화적 수사이자, 저출산

과 고령화가 초래한 국내의 노동력 부족과 같은 일본 사회가 당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 플랜이었다.

이 글은 일본의 인재 정책이 담지하는 국가와 국민 정체성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이 더 큰 사회 체계 속에서 주체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연결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는 정책 인류학의 관점에서 접근한다(Shore and Wright, 1997: 4, 6; Wright and Reinhold, 2011: 87).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책 과정을 통하여 일본의 사회와 문화의 파편이 어떻게 새롭게 배치되고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거나 혹은 굴절되었는지를 보고자 한다(Shore et al., 2011: 2). 둘째, 국제화와 글로벌화의 정치적 아젠다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 담론의 작동방식과 주체 구성 방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정책의 기저에 놓여 있는 언어와 가설을 보고자 한다(Wedel et al., 2005: 33). 이러한 논의는 글로벌 시장 경제의 확산과 신자유주의적 인간형을 만들고자 하는 유사한 전 지구적 흐름 속에서, 한 국가의 글로벌화 정책 과정이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기존 정체성 담론과 교차하면서 어떠한 사회문화적 수사를 새롭게 만들어 내고 새 시대의 주체를 구성하고자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III. 새 시대의 일본인을 위한 지침

#### 1. 국제화와 국제인

국제화는 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가 간의 관계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화는 지구 전체를 통한 관계성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 국제인은 나라의 집합체로서의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리고 글로벌인재는 지구 규모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국제화’, ‘국제인’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요즘에는 ‘글로벌화’, ‘글로벌인재’라는 말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오사카부 ‘A’시 국제교류협회 스태프, 2022. 2. 7. 인터뷰).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 일본에서 개국의 수사는 ‘국제화’라는 국가적



답론으로 나타났다(Horie, 2002: 65; Goodman, 2007: 72; 片野田優子, 2015: 34-40; 勝又美智雄, 2019). 국제화라는 용어는 1920년대 대외적 세계정세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Oliver, 2009: 48-49). 이후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재등장하였다.

1970년대 이후 시장 중심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확대되고 일본 국내외에서 개방에의 압력이 심화하였다. 전후 단기간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국제사회에 진입한 일본 국내에서는 그간의 폐쇄적인 국가 이미지를 재고(再考)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박경민, 2019: 58). 일본 정부는 1972년에 국제교류기금을 설립하여 일본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외에서의 일본 문화 교류에 초점을 맞추는 ‘외향적 국제화’에 집중하였다. 1980년대까지 대외원조와 정치 및 경제적 국제교류에 집중했던 국제화는 교육, 문화, 스포츠 등의 국제교류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화 정책은 일본 사회 내에서 국제교류 및 국제교육을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지식과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내향적 국제화’로 전환하였다(文部省, 1981, 1992; 藤山一郎, 2012: 130).

1986년 나카소네 내각은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행정과 교육의 개혁을 통해 종래 경제 중심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국가 일본 만들기에 집중하였다(中曾根康弘, 1986; 藤山一郎, 2012: 130). 특히 교육은 국제화 시대에 일본인임(Japaneseness)과 일본문화를 재구성하고 지배적인 국가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도록 하는 개혁의 핵심적 통로로 간주되었다(Sarup, 1996: 137, 139).

나카소네 내각은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84년에 수상 직속 자문기관으로서 ‘임시교육심의회(임교심)’를 법률로 설치하였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4회에 걸쳐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의 국제화”의 목표로 “다양화, 자유화, 개성화”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였다(勝又美智雄, 2018: 390). 이 시기 국제화의 핵심적 내용은 고등교육의 개혁을 통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본인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전후 … 국제교류가 문화와 교육 정책 과제 중 하나로서 주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이후부터이다. … 1976년에는 중앙교육심의회가 「교육, 학술, 문화 국



제교류에 관하여」를 통해 “국제화의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사람·물건·정보의 직접적인 교류 확대를 위한 여러 시책을 제시하고, 국내 교육과제로서는 처음으로 국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을 육성”할 것을 지적했다(文部省, 1992).

1970~1980년대 산업계에서 “국제화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라는 의미로서 “국제인”, “국제파”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던 국제화의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국제인이라는 단어 역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Sugiyama, 1992: 72). 국제인은 일본에서 문자 의미 그대로 “international person”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번역어는 영어의 의미로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이 내포하는 일본적 맥락을 담지하지 못한다(Yoneoka, 2000).

국제인은 흔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였다(Kato, 1992: 310; 野澤和典, 1998: 3). 따라서 국제인은 영어가 어느 정도 되고 외국 사정에 밝아서 기업 내에서 해외 사정을 해설하는 역할을 하거나 통·번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통·번역을 하는 국제인은 멸시의 뜻이 담긴 ‘영어쟁이(英語屋さん)’<sup>2</sup>로 불리기도 하였다(勝又美智雄, 2018: 393). 한편 국제인, 국제파는 또한 “외교 엘리트” 같은 이미지로서 “문화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소수자”를 가리켰다(夏井丈俊, 2012: 7). 이들은 해외 유학이나 해외 주재원의 경험을 통하여 다른 일본인보다 해외 문화나 정보를 접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로서 “학자, 연구자와 함께 저널리스트, 평론가, 외교관, 관료, 기업인과 지적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지식인과 같은 직업 집단을 포함”하였다(요시노, 2001: 22; 木村有伸, 2015: 292).

이처럼 영어 능력과 외국 사정에 밝은 국제인은 “일본인이 해외에서 얼마나 기묘한 존재로 보이는지, 혹은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를 지적하면서 “서양과의

<sup>2</sup> 영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英語屋さん은 1951년 겐지 케이타(源氏鶏太)가 발표한 단편소설의 제목이다. 입사 10년째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하여 쇼와 시대 사라리만(회사원)의 모습을 담았다. 소설은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기업에서 통역가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도 강고한 성격으로 인해 촉탁직원으로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에서 유래한 ‘英語屋さん’라는 단어는 영어가 가능해서 기업에 채용된 사원을 일컫는 말로 다소 멸시하는 뉘앙스를 가졌다..

관계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본인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부끄럽지 않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로 인식되었다(木村有伸, 2015: 291, 294). 이런 의미에서 국제인은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을 가진 문화엘리트였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국제인은 일본과 서양을 비교 수준에 놓고 서양의 틀 안에서 일본인이라는 상이한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던 일본인론과 일맥상통한다(요시노, 2001: 227; 船曳健夫, 2010: 48).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국제화가 국민적 캐치프레이즈가 되면서 일본 사회 전반에서 국제인 육성에 대한 기대감 역시 충만해졌다. 당시 국제인 담론은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일본인들의 국제적 마인드 장착에 주목하였다. 이때 국제인은 일반적으로 “섬나라인 일본에서 일본과 해외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 가로막힌 말, 문화, 심리 등 다양한 ‘벽’을 뛰어넘었거나 ‘벽’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사람”(野澤和典, 1998)으로 정의되었다. 타문화 이해 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이제 국제인은 영어 능력만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시작했다. 국제인은 개인의 특정한 자질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인간형이라기보다, 타문화와 언어를 이해하여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일본 사회에서 국제화라는 용어가 글로벌화와 구분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東條加壽子, 2010: 90). 이전까지 비즈니스와 정책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던 글로벌화 혹은 글로벌라이제이션(グローバルイゼーション)이라는 외래어가 대중적 수준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던 국제화(國際化)라는 한자어를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화라는 개념은 2010년 이후에도 정책 문건을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다(박경민, 2019: 62).

1990년대에 전 지구화가 가속화하면서 일본의 주요 기업은 글로벌인재를 필요로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사정을 국내에 통보하는 “수신형(受信形)” 인간형인 국제인으로부터 일본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발신형(発信形)” 인재, 곧 글로벌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勝又美智雄, 2019).

## 2. 글로벌화와 글로벌인재

「글로벌인재 육성 추진 사업」<sup>3</sup>은 젊은 세대(와카모노)의 ‘내향 지향성’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산업경쟁력 향상과 국가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반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교육의 글로벌화를 위한 체제정비 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文部科学省, 2012).

2010년대는 일본 국내에서 시장 중심의 정책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장기화하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경제적, 정신적 개국”을 통한 “일본재흥”의 정치적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菅直人, 2011; 安倍晋三,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정부는 “글로벌화가 한층 진전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글로벌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글로벌인재”를 본격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文部科学省, 2011: 3).

글로벌인재 육성 정책은 첫째, 해외진출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내향지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고, 둘째, 가속화하는 경제적 측면의 전 지구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재상(일본인 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셋째,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대학 개혁을 통한 고등교육의 글로벌화에 주목하였다. 2010년대 이후 포스트 버블 일본 사회에서 글로벌인재는 1980년대 개발주의 시대의 최정점에서 등장하여 인기를 끌었던 국제인 담론을 대체하며 “유행”이 되었다(守屋貴司, 2016: 29).

글로벌인재라는 용어는 1999년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에 실린 기사에서 토요타 자동차 회사가 사원을 글로벌인재와 로컬인재로 구분하고 글로벌인재를 미래의 경영 간부로 육성하고자 제안한 경영방침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글로벌인재와 관련하여 일본경제신문의 기사를 분석한 요시다(吉田文, 2014)에 따르면, 글로벌인재라는 용어는 1990년대에 처음 등장했지만 2000년대까지는 크게 미디어의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10년대 들어서면서 관련 기사가 본격적으로

3 “글로벌인재 육성 추진사업”(2012)은 2014년부터 “경제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글로벌인재육성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증가하였다(吉田文, 2014: 165). 하지만 1990년대 말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글로벌 인재 개발”이라는 부서를 설치하고 있었다.

1980년대의 국제인이 해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통·번역의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이나 외교 엘리트라는 이미지로부터 타문화와 언어를 이해할 줄 아는 일본인을 의미하게 되었다면,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글로벌인재는 와카모노(청년)와 같은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일본인이라는 의미로 구체화하였다. 글로벌인재는 일에도 유능하고, 특히 외국인 상대로 외국어(주로 영어)로 교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슈퍼엘리트”로 이미지화하였다(勝又美智雄, 2018: 394).

2000년대부터 일본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기반한 교육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 3월 재계의 총본산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글로벌 시대의 인재 육성”을 정부에 제안하였다(經濟団体連合会, 2000). 경단련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으로서 “주체성, 프로의식, 지력이라는 기초적 능력”과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제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교육개혁의 슬로건으로서 “국제화 이상으로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제창하였다(勝又美智雄, 2018: 391-393). 이어 2000년 11월 경단련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문부성의 자문기관인 대학심의회가 “글로벌화 시대에 요구되는 고등교육 방식에 대하여”로 답신하고, 문부 행정으로 “글로벌화 시대에 어울리는 인재 육성”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文部科学省, 2000).

2000년대 초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세계 최대의 민영화를 단행했던 고이즈미 내각(2001~2006)은 전 지구화의 급격한 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경쟁과 효율 중심의 정책을 전개하면서 대학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하였다. 고이즈미 내각은 2001년 국립대학 구조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립대학 통합합을 주도하고 2004년에는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 경영에 민간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교원의 자기평가와 대학의 3자 평가에 의한 경쟁 체제를 도입하였다(国立教育行政政策研究所, 2018). 이어 1차 아베 내각(2006~2007)은 신국가주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오대영, 2011: 70-71).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아베 내각은 대학과 대학원의 연

구 기능을 강조하는 한편 산학협동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대학 행정 체계 개편, 영어 수업 확대, 외국 교원 증원, 커리큘럼 개편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의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전개된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의 글로벌화 정책은 교육 개혁과 연동하여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1980년대 국제화와 국제인 양성이 일본이 개방(개국)에 직면하여 대미 무역 흑자를 상쇄하고 일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대외 정치·경제적 제스처였다면, 글로벌인재 육성 정책은 일본의 국가 성장 전략인 “일본재흥전략(Japan is Back)”에 연동하여 신자유주의적 컨셉을 탑재한 인간 양성을 위한 액션플랜의 일환이었다(日本再興戰略, 2013: 37-38).

## IV. 글로벌인재 정책: 일본재흥의 액션플랜

### 1. 관-산-학 파트너십의 인재 만들기

넓은 의미에서 글로벌인재 정책은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대응이었다. 다른 한편 글로벌인재 정책은 일본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젊은 노동력 부족과 일본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관련된다(吉田文, 2014: 36). 이처럼 글로벌인재 정책은 경제 중심의 전 지구화,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정보화, 그리고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유동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움직임이었다(Yonezawa, 2014: 37). 이러한 배경에서 2010년대 초 일본 사회에서는 정부-시장-대학(“관청-민간-대학”)의 삼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교육 서비스로서 청년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고등교육의 시장화”가 본격화하였다(經濟産業省, 2010a; 經濟団体連合会, 2011; 文部科学省, 2011: 4; 藤山一郎, 2012: 128). 정부는 글로벌인재 육성을 행정, 대학, 기업의 삼각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인식하였다(文部科学省, 2011: 5-12; 首相官邸, 2012: 28).

글로벌인재육성 정책은 2007년에 제안된 산학 파트너십의 일부로서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1970~1980년대의 국제화와 국제인 양성을 관리하는 정책 주체는 자치성(현재의 총무성), 문부성(현재의 문부과학성), 외무성의 3개 정부 기관이었다(McConnell, 1999). 특히 1970년대부터 국제교류를 핵심으로 하여 외향적 국제화를 오랜 외교정책의 하나로 간주했기 때문에, 외무성은 국제화와 국제인 양성 정책에 참여하는 중요한 행정 기관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글로벌인재 육성정책에는 총무성, 문부과학성과 함께 경제산업성과 일본 최대의 경제인(기업인) 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글로벌인재는 글로벌화라는 정책 과제를 위하여 기업, 정부, 교육계가 협업하여 인간형을 정의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인재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는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내각관방(총리실)이 제시한 3요소에 기반한 정의가 주로 통용된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인재는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나 일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풍부한 어학력·커뮤니케이션 능력, 주체성·적극성, 타문화 이해의 정신 등을 몸에 익혀 여러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로 정의된다(總務省, 2017). 한편 표 1에서 보듯이 각 기관은 세부적으로 글로벌인재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흔히 통용되는 글로벌인재의 정의는, 글로벌인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자질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면서 다소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인재의 ‘글로벌함’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각 기관이 정의하고 있는 글로벌인재의 ‘글로벌함’의 자질로 주목한 것은 어학 능력, 특히 영어 능력이다. 어학 능력과 타문화 이해력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글로벌인재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자질이다. 이와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경제산업성과 경단련이 강조하고 있는 기업가정신으로서의 ‘사회인 기초력’과 내각관방(총리실)과 문부과학성이 강조하고 있는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라는 항목이다. 이 두 가지는 글로벌 일본인을 구성하고자 하는 재계와 정부라는 정책 주체의 관심사를 반영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새 시대의 일본이 추구하

표 1 총리관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제시한 글로벌인재 요건

	내각관방(총리실)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
1. 어학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소 1: 어학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언어, 문화, 가치를 넘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동료, 거래처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li> </ul>
2. 기업가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발견과 해결 능력, 팀워크(이질적 집단 포함)와 리더십, 공공성, 논리관, 미디어 리터러시 등</li> <li>•요소 2: 주체성, 적극성, 도전정신, 협조성, 유연성, 책임감, 사명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인 기초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인 기초력</li> <li>•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성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도전정신</li> </ul>
3. 교양, 전문 분야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넓은 교양과 심화된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넓은 시야에서 길러지는 교양과 전문성</li> </ul>		
4. 일본인의 아이덴티티, 타문화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소 3: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li> <li>•협조성</li> <li>•다음 세대까지 시야에 넣을 수 있는 사회공헌 의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문화 이해, 활용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문화, 가치관의 차이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자세</li> </ul>

출처: 市村光之(2018)을 재구성함.

고자 하는 국가모델과 일본인 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논의점을 드러낸다.

## 2. 글로벌인재의 자격

### 1)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본인

일본 정부는 글로벌인재의 필수조건으로서 외국어, 특히 “높은 영어 능력”을 설정하고, 젊은 세대의 영어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개혁을 급선무로 하였다



(勝又美智雄, 2018: 395).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교육의 국제화를 위하여 영어의 비중을 높여 왔다. 따라서 일본의 글로벌인재 정책은 일본의 영어교육을 둘러싼 교육개혁으로 가시화하였다.

2000년에는 총리 자문기구인 “21세기일본구상간담회”가 “영어 제2공용어화론(英語第二公用語論)”을 제안하였다(21世紀日本の構想懇談会, 2000). 이는 국제화와 전지구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세계 공통어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본인들의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영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계획은 일본인의 영어 능력에 대한 일본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 준다. 이 제언이 있은 후 2008년 일본 정부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외국어 활동으로 영어교육을 시작하였고, 2011년에는 영어를 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하였다. 그리고 2020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외국어 활동으로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영어 중심의 인재 육성에 연동하여, 2002년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본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2003년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공표하였다. 이 정책은 “국민 전체에 요구되는 영어 능력과 전문 분야에 필요한 영어 능력이나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는 인재에게 요구되는 영어 능력”의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본인” 육성” 정책의 내용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인사나 평이한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일상적 주제에 대해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영어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文部科学省, 2002).

## 2) 회사원(사라리만)에서 기업가적 주체로

1980년대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인적 자원이자 쇼와 시대(버블경제)를 상징하는 일본의 대표적 인재형은 ‘사라리만(サラリーマン)’, 즉 남성 정규직 화이트칼라 노동자였다. 영어의 *salaried man*에 대응하는 일본식 조어로 현대 일본의 맥락에서는 비즈니스맨 혹은 회사원을 의미한다. 흔히 사라리만은 학력자본을 가진 20대 남성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종신고용을 기본으로 하는 회사의 충성스러운 성원으로서는 정년을 맞는 것으로

그려졌다. 하지만 사라리만은 단순히 회사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일본의 산업구조와 문화가 결합한 독특한 인재상이었다. 사라리만은 원래 일본의 근대화, 산업화와 함께 192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을 의미하였다. 2차대전 후 월급제와 장기고용 관행이 확대되고, 고학력화와 대중소비사회의 확대로 라이프스타일이 균질화하면서 봉급생활자로서의 사라리만이 새로운 중간계급의 표준적인 생활방식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高橋正樹, 2001: 17). 이러한 사라리만은 일본 버블 경제시기의 경제적 풍요와 새로운 소비문화의 일부를 상징하였다.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사라리만은 또한 현대 일본 사회의 제도 와 문화적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였다(岡本智周·笹野悦子, 2001: 30). 1970~1980년대 사라리만은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낸 일본(인)론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었던 ‘주식회사 일본’,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별 노조’와 같은 ‘일본적 경영’의 핵심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중간계급’, ‘신 중간층’으로 불리며, 일본의 엘리트주의 교육과 “중산층 사회 일본”을 구성하는 핵심적 가치를 담지하는 존재였다(Kelly, 1991: 405). 또한 가족의 물질적 기반을 지탱하는 ‘사라리만 남성’과 가정에서 재산을 담당하는 ‘전업주부’와 쌍을 이루며 현대 일본사회의 가족과 젠더 구조를 표상하였다. 고도 경제 시기의 최전선에서 ‘일본주식회사’에서 초과근무와 과로사하는 남성 노동자를 표상하며 현대 일본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상징하기도 하였지만, 사라리만은 고도성장기 일본의 기업과 국가를 유지하게 한 중요한 인적 자원이었다(岡本智周·笹野悦子, 2001: 18).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제경쟁이 심화하고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기 침체와 국제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면서 종래의 일본식 경영의 핵심적 가치와 인재형이 의문시되기 시작하였다. 성장 기반의 경제 구조에 적합했던 사라리만형 인재는 전 지구화의 확산과 일본 내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원활히 기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 더욱이 완전고용 제도를 전제로 했던 사라리만의 집합적 라이프스타일은 새로운 시장중심의 체제와 함께 1990년대 들어 개인화, 주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岡本智周·笹野悦子, 2001:27).

최근 일본에서는 급변하는 시장과 치열해지는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본주의적 가치를 장착한 “안토르프르뇌르(entrepreneur)형 인재”, 즉 기업가 정신을 탑재한 인재가 주목받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제로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창조하여 리스크에 맞서는 정신과 자세”로서 정의된다. 일본 사회에서 대중적 용어로 등장한 기업가적 주체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립과 협동을 위해 능동적, 주체적 힘을 몸에 익히고 새로운 가치를 주도”하는 능력이다(總務省, 2017).

도전정신, 주체적 행동력, 리더십, 주체성, 창조성, 적극성을 강조하는 이 기업가정신은 글로벌인재의 자질로서 경제산업성과 경단련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인 기초력’과 상통한다(표 1). 사회인 기초력은 2006년에 경제산업성이 제창한 개념으로서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말한다(經濟産業相, 2010a: 31). 사회인 기초력은 구체적으로 ‘액션(주체성, 행동, 실행력)’, ‘싱킹(문제발견, 계획, 창조력)’, ‘팀워크(발신, 청취, 상황 파악, 유연성, 규율, 스트레스 컨트롤)와 같은 자질로 제시되었다(經濟産業相, 2010b). 글로벌인재에게 요구되는 사회인 기초력은 종래의 집단적이고 하향식의 관리 조직에 적합한 사라리만형 인재와는 다른, 새로운 일본을 창출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인재의 자질을 반영한다.

1980년대부터 일본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은 개인주의, 기업가주의, 시장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맞는 주체를 재구성하기 위해 평가와 경쟁에 기초하여 자기 규율을 강화해 왔다(푸코, 2004: 319; Ganti, 2014: 94-95; 森裕城, 2012: 45). 1990년대부터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평가에 근거하여 대학의 지원 기준을 차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은 외국인 학생과 교원 비율, 성과주의 설정, 정보공개, 영어 강의 등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경쟁함으로써 평가 기준에 충족하도록 자기 감사를 요구받았다(Shore and Wright, 1999: 557). 회사에 충성하는 수동적인 회사원으로서의 사라리만을 대체하면서, 글로벌인재는 다양성의 수용, 외국어 능력, 타문화 이해, 도전정신, 주체적 행동력, 리더십, 주체성, 창조성, 적극성, 유연성, 그리고 사회인 기초력을 장착하고 “스스로 움직여 변화를 가져오는 인재”로서 자기 계발의 주체로 간주되었다.

일본 사회의 맥락에서 기업가적 주체는 ‘성실하지만, 수동적인 인재’로서의

‘얼굴 없는’ 사라리만형 인재와는 대조된다. 종신고용과 연공서열로부터 보호받던 수동적인 일본의 인재는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역량을 키워 스스로 주도해 나가야 하는 주체적 인재가 될 것이 요구되었다. 집단주의적이며 종적인 일본의 구조적 시스템(나카네 지에의 타테 사회 참고) 속에서 기업의 구성원이었던 일본인들은 이제 자신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자기 계발의 담론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 3) 일본다움이라는 국경과 일본인으로서의 각성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는 일본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각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장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7년과 2021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각 교과에서 고전이나 우리나라의 언어문화, 각 현의 주요 문화재와 연중행사, 우리나라나 향토의 음악, 일본 악기, 무도, 일본 음식, 일본 옷 등에 대한 지도를 충실히 지도하도록 하였다(內閣府, 2022: 131).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문화나 역사 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배움으로써 일본이라는 나라나 일본인이 해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시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글로벌인재” 육성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經濟産業相, 2010a: 35).

일본의 글로벌인재에게 강조되는 또 다른 자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어,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일본인의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노무라 경제연구소는 일본의 “제3의 개국의 핵심적 과제는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 일본 고유의 강점을 살리면서 국제사회에 침투해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개국의 시점에서 “일본 고유의 문화나 전통 등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최소한의 ‘일본다움’이 국경이 된다”고 강조하였다(野村総合研究所, 2015). 글로벌인재에게 ‘글로벌한 속성’과 더불어 ‘일본인임’의 인식을 강조하는 것은, 전 지구화에 수반하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차별적 가치를 강조하는 지역화(localization)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Castells, 2006: 56; Hermans and Hermans-Konopka, 2010: 24). 하지만 일본의 맥락에서 제3의 개국에 직면하여 국경이 사라

지는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인재의 자격으로써 국가 주도로 일본다움의 국경을 재설정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은 또한 글로벌 일본인론의 일부다.

이러한 의미에서 글로벌화와 글로벌인재의 담론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능력 역시 중요한 자질로 강조된다(戸田貴子, 2015). 일본어 능력을 강조하는 논자들은 일본의 글로벌인재 육성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모국어인 일본어의 힘”이라고 주장한다(Liddicoat, 2007; 柳沢美和子, 2021; 堀井恵子, 2014). 이러한 입장은 글로벌인재 정책이 영어의 운용 능력에만 한정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외국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세계의 정보와 문화를 흡수하고, 나아가 일본어로 세계에 일본을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언어교육의 역할이라고 역설한다.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일본어의 강조는 비단 글로벌인재에게만 요구되는 속성은 아니다. 1980년대에 문화적 국제교류를 주요 형식으로 채택했던 국제화 담론에서도 일본인으로서의 각성과 정체성은 국제인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1987년에 국제국가를 목표로 하며 “국가교육개혁회의”가 제안한 고등교육제도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일본인으로서의 각성과 국제인의 양성”이었다(田中圭治郎·ナカニシマ, 2003). 이후 내향적 국제화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한 ‘지역의 국제화 정책’에서 국제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 역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일본인으로서 자각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었다(自治省, 1989). 국제화가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전제한 관계(internationalization)라는 인식 위에서 일본과는 다른 타 문화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형태로 실천되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국제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속성이었다(박경민, 2014: 95).

따라서 국가적 수준에서든, 시민의 수준에서든, 일본의 국제화는 타 문화(타국)와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가르치는 형식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국가적 수준에서, 1972년에 설립한 외무성 산하의 일본 국제교류기금이 집중된 외교 정책으로서의 외향적 국제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교육하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일본 국제교류기금은 국제교류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의 일본어,

일본문화를 교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청소년, 대학생, 연구자, 사서, 공무원, 외교관 등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수준에서, 일본 정부는 1980년대 민간 부문의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을 강조하며 지역사회를 국제화 정책의 주체로 지목하며 ‘지역의 국제화 정책’을 공식화하였다. 이러한 지역의 국제화 정책의 최전선에 있었던 것은 주민의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외국인과의 교류에 집중하는 국제교류협회 및 국제교류센터였다. 그리고 이들 국제교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교류방식 중 하나가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와 일본문화 강좌였다(박경민, 2021: 146). 국제화 과정에서 국제교류라는 실천 방식은 일본인입의 경계를 상시로 환기하며, 일본인들의 일상적인 내셔널리즘을 체화시키는 전략으로서 주요하게 작동하였다(벨리그, 2020:23, 93).

글로벌인재의 정책 아젠다 역시 내셔널리즘적 언어와 규범을 강조하면서 정치화하였다. 1990년대 중반 버블경제가 붕괴한 일본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함께 내셔널리즘 담론이 동시에 팽창하였다(사이토, 2009). 초국가적 전 지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은 시장 의존적 정치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전통과 문화 담론 및 정책 전략을 동원하여 주권 국가의 외형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1차 아베 내각(2006~2007)은 2006년에 “아름다운 나라 일본(美しい国、日本)”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표방하면서, 애국심 교육과 ‘국토, 가족, 역사, 문화, 전통’을 강조하는 국가상을 제시하였다(安倍晋三, 2006). 이듬해(2007), 경단련은 ‘기업도 국기와 국가(기미가요)를 존중할 것’임을 역설하며, ‘자주, 자립의 정신, 다양성, 상호신뢰’를 강조한 “희망의 나라 일본(希望の国、日本)”이라는 경제 슬로건으로 호응하였다(日本経済団体連合会, 2007: 14-15). 아베가 제시한 “아름다운 국가”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본”을 의미하였으며, “일본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강조하는 담론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름다운 국가”는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모호해지는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일본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松本健一, 2007).

2013년에 아베 내각(2012~2020)은 장기불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를 내걸며 “일본재흥전략”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재정지출, 경기부양,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아베노믹스”를 공식화하였다(日本再興戦略, 2013:

36). 이러한 경제 전략에 연동하여 아베노믹스의 핵심적 전략으로서 일본 문화 산업의 국제화를 목표로 하는 “쿨재팬(Cool Japan)” 프로젝트를 선전하였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새로운 일본 창조(新しい日本の創造)”를 위하여 경제적 창출과 일본의 전통과 문화 담론을 결합하는 내셔널리즘 전략을 강화해 왔다(内閣府, 2012, 2013).

이와 같이 포스트 버블 일본의 글로벌인재 담론은 영어 능력을 탑재한 인재, 글로벌 마인드를 장착하면서도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담지하는 인재, 그리고 회사원 마인드에서 기업가적 주체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일본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문화의 조각을 재배치하면서 새 시대를 위한 일본국가와 일본인에 관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화 과정에서 정책 대상, 경로, 목표가 굴절되면서 일본의 글로벌인재 정책은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 V. 글로벌인재 정책 담론의 굴절

### 1. 문제적 세대로서의 ‘와카모노(청년)’라는 표상<sup>4</sup>: 정책 대상의 굴절

글로벌인재의 주요 대상으로서 ‘와카모노(청년)’가 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한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듯 보이는 ‘내향화하는 사회’라는 일본의

<sup>4</sup> 와카모노(若者)는 ‘청년’과 ‘젊은이’로 번역될 수 있다. 1970년 무렵까지는 와카모노보다 청년(青年)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와카모노가 더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古市憲寿, 2015: 42). 와카모노는 청년보다 더 넓은 연령대를 포함하며, 와카모노를 규정하는 연령대는 일본의 미디어나 정부 정책 문건마다 다르다(内閣府, 2019). 내각부는 와카모노를 30세까지로 정의하지만, 후생노동성은 45세 미만으로 본다(日本学術会議, 2017: 1). 한편 일본학술회는 와카모노의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39세로 정의하고 있다. 젊은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와카모노는 1990년대 이후 사회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가 고령화함에 따라 보다 폭넓은 연령층을 포함해 왔다. 이러한 폭넓은 연령의 폭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와카모노는 10대 후반에서 20대를 주로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 글에서는 청년담론의 의미를 담기 위하여 와카모노와 청년을 병치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현재적 근경의 주변으로 지목되어 왔다.<sup>5</sup> 신자유주의의 확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청년 세대론에서 청년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정에 집단”으로 표상되는 동시에(조문영, 2018: 8), 신자유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경쟁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불행한 세대로 그려진다(古市憲寿, 2011: 40).

일본의 맥락에서 와카모노(청년)는 경제 성장기와 총 중류(1억 총 중산층) 시대를 경험한 단카이(베이비부머) 세대와 대비되며 격차사회의 희생자로 표상된다. 와카모노(청년)는 일본의 시대적 국면에서 청년문화를 대표하는 동시에 세대론의 중심에서 일본 사회의 병리 현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동안 와카모노(청년)는 니트족, 히키코모리, 네트카페 난민, 프리터 등의 신조어 아래에서 포스트 버블 사회 일본 사회의 불안과 그들을 체현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와카모노(청년)는 버블 시대의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주도한 사라리만 세대와는 달리, 시대의 요구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적 세대로 간주된다. 이들은 주입식,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ゆとり)교육”을 목표로 197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02년에 공교육에 도입된 전인(全人) 교육을 받은 ‘유토리 세대’(주로 1987년생에서 2004년생)로서 학력 저하로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결혼이나 연애에 관심을 두지 않는 초식남이나 건어물녀와 같이 도전정신과 패기 없음, 적극성 부족, 온순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속에서 인식되어 왔다(末廣昭·園田茂人, 2012: 60; 齊藤孝, 2013).

2012년에 글로벌인재 육성 정책을 공표하면서, 일본 정부는 와카모노(청년)를 정책의 대상으로 지목하며, “젊은 세대(와카모노)의 내향지향성 극복”을 정책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文部科学省, 2012). 여기서 글로벌인재 정책 과정의 굴절을 이해하기 위하여 와카모노(청년)에 관한 3가지 정책적 전제에 대하여 비판적

<sup>5</sup> 1920년대 일본에서 청년(青年)은 국가체제에 동원되는 인적 자원으로서 “건전한 국민이자 선량한 공민을 양성”하는 정책의 중심에 있었다(김중식, 2007: 17). 전후, 청년(青年)에서 와카모노(若者)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다. 본격적인 와카모노론(若者論)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으로, 1970년대를 기점으로 와카모노론에서 주로 사용되던 청년(青年)이라는 단어가 와카모노(若者)로 바뀌었다(小川豊武, 2014: 89). 이 시기는 전후 베이비부머가 20세 전후의 청년이 되는 시기이자 일본에서 ‘중류의식’이 확대되는 시기였다. 1970년대 전반에 일본 사회에서 계급이나 지역차이 대신 세대라는 인식 틀이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古市憲寿, 2015: 43).

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글로벌인재 정책은 첫째, 내향지향성을 포스트 버블 일본 와카모노(청년)의 특성으로 전제하고, 둘째 와카모노(청년)의 내적 다양성을 간과하였으며, 셋째, 와카모노(청년)에 대한 부정적 표상에 근거하고 있다. 정책 대상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전제는 글로벌인재 정책을 특정의 이미지와 논의의 틀 안에 한정시키게 하였다.

첫째, 글로벌화와 내향화를 특정 형태의 가시적 성과와 지표로서 접근함으로써, 글로벌인재 담론에서 정책 대상으로서의 와카모노(청년)의 내향성을 과잉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다. 와카모노(청년)의 내향적 태도는 2008년 세계 경제 금융 위기 이후에 산업, 학계, 정책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Yonezawa, 2014: 46). 이들이 와카모노(청년)의 내향적 성향의 주요 지표로 삼는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하기 시작한 청년의 해외 유학 및 경험에 관한 통계 자료이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외국과 비교하며 미디어, 학계, 정부는 와카모노(청년)의 해외 유학이나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을 현대 일본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언급해 왔다. 그러나 일본 대학생들과의 심층 면접을 수행한 그라임스-맥렐란에 따르면 일반적 우려와 달리 일본의 젊은이들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었다(Grimes-MacLellan, 2017).

이와 함께 와카모노(청년)의 해외 기피 현상에 대한 강조는 유학 대상 국가의 다변화를 인식하지 않고 유학의 의미를 종전의 구미 중심 관점에 근거한 지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sup>6</sup> 대학개혁과 글로벌화에 집중했던 일본 정부의 유학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해외 유학 및 연수국이 다변화하였고, 참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해외 연수가 수치상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다(文部科学省, 2022). 버제스(Burgess, 2015)는 와카모노(청년)의 내향화의 원인을 와카모노(청년) 자체에 돌리기보다, 일본 사회 내의 여러 정책의 실패와 기업문화의 보수성, 그리고 일본적 의식을 반영한 교육정책의 실패와 같

<sup>6</sup> 일본인 해외 유학생 수는 1980년대 1만 5,000명에서 2004년에 8만 2,94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11년에는 5만 7,501명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다. 2022년 현재 6만 1,989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内閣府, 2022: 133). 그리고 2010년까지 일본인의 해외 유학은 미국 일변도였지만, 2016년 현재 미국(33.6%), 중국(24.3%), 대만(13.5%), 영국(5.3%) 등으로 다변화하였다(内閣府, 2019: 218).

은 사회적 문제에서 기인하였다고 보았다(Burgess, 2015). 더욱이 일본사회의 내향적 경향은 와카모노(청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최근의 설문 조사는 일본 사회 전체에서 내향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NHK放送文化研究所, 2018).

둘째, 글로벌인재 정책이 와카모노(청년)를 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와카모노(청년)내의 다양성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의 와카모노(청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에 청년(青年) 담론은 청년의 다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sup>7</sup> 반면에 와카모노(청년)는 격차사회의 희생자나 문제적 세대라는 부정적인 집합적 표상 속에서 다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와카모노(청년)의 내적 다양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日本學術會議, 2017). 2000년대 이후 일본이 ‘중류사회’가 아니라 ‘격차사회’라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와카모노(청년)를 하나의 집합으로 정의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후루이치(古市憲壽, 2015)의 지적대로, 현실의 와카모노(청년)는 정규직, 비정규직, 도시형 노마드, 지방형 마일드 양키(양아치) 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경험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위치 지어진 존재이며, 단일한 범주로 묶일 수 없다(古市憲壽, 2015: 43).

셋째, 2000년대 중반부터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유포되어 온 수많은 와카모노론은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는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小川豊武, 2014: 89). 1970년대 청년(青年)이 “성숙함, 성인됨, 사회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일종의 ‘과정적인 단계’로서 여겨졌던 것과 달리, 와카모노(청년)는 “성인과 단절된 존재, 이질적인 존재”이며,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유아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小川豊武, 2014: 91). 한편 2010년대 초부터 그간 전 세대와 비교하여 수동적이며 문제의 소재지로서 간주되었던 와카모노(청년), 혹은 유토리 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古市憲壽, 2011, 2015). 이들은 단순히 사보리(농뽕이) 세대가 아니며, 생각보다 행복하고, 생각보

<sup>7</sup> 1950~1960년대 베이비부머(단카이 세대) 세대는 기존 가치관을 거부하고 자유분방함을 추구한 태양족, 목적 없이 화려한 복장으로 간자를 배회하던 미유키족, 70년대 히피계열의 라텐족, 소비자로서의 여성 와카모노(청년)를 대표하는 안논족 등으로 불리며 전후 경제 성장기와 소비사회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맥락을 반영하였다(難波功士, 2004a; 難波功士, 2004b: 165, 173; 難波功士, 2004c: 42, 49).

다 성장해 있다는 것이다(齊藤孝, 2013; 古市憲寿, 2015).

긍정적 관점에서 와카모노(청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버블 시대의 와카모노(청년)는 개발주의 시대 일본의 성공적 자화상을 그려왔던 적극적, 외향적, 국제적 청년 세대로서의 사라리만형 인재와는 달리, 여전히 수동적, 내향적, 퇴행적 이미지의 과잉 속에 놓여 있다. 이처럼 글로벌인재 정책 담론이 지향하고자 하는 ‘글로벌인재의 청년 모델’과 유사적, 수동적, 부정적 표상 속에 놓여 있는 ‘일본 청년의 현실’ 사이의 불일치는 글로벌인재상의 불균형을 드러낸다.

글로벌인재 정책 대상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 전제는, 와카모노(청년)의 잠재성과 다양성을 간과하고 단일 집합체로서의 와카모노(청년)라는 집합적 표상에 근거함으로써 글로벌인재 정책이 국가나 재계와 같은 정책 주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표준적, 획일적 능력을 갖춘 수동적인 인간형 양성에 집중하게 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글로벌인재 정책에서 ‘글로벌함’의 의미는 다양성의 수용, 열린 사고, 시야의 확장과 같이 흔히 ‘글로벌한 인재’에게 기대되는 능동적, 개방적 자질로 확장하지 못한 채, 외국어(영어) 능력의 여부, 유학이나 해외 경험과 같은 가시적인 지표로서 평가되는 특정 형식으로 환원되었다.

## 2. 획일화된 인재형: 정책 경로의 굴절

일본의 글로벌인재 육성 방향과 그 현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인재 정책 담론이 경단련이나 경제동우회와 같은 재계의 주도로 먼저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吉田文, 2014; 守屋貴司, 2016, 2020; 勝又美智雄, 2018). 글로벌인재 양성 정책의 설계와 실행 과정은 재계, 정부, 문부과학성, 그리고 일선 학교라는 다소 단선적인 경로를 거치면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글로벌인재의 정책 경로는 글로벌인재의 의미를 굴절시켰다.

1980년대 이후 교육 정책은 일본의 인재 정책 방향에 대한 재계의 영향력과 관저(총리실) 주도의 정책 구성, 그리고 행정주도의 정책 시행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국가 주도의 교육 정책 방향은 교육행정에 대한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의 영향력 상실과 문부성(현재의 문부과학성)의 강화에서 기인한다. 1980년

대 중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 개혁을 강조한 나카소네 총리(수상관저)가 직접 문부성을 통괄하면서, 1970년대까지 문부성과 대립하던 일교조가 권력관계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이로써 교육의 자유화와 규제 완화를 강조했던 일본의 교육 정책은 2000년대 이후 정부의 관리와 규제로 전환되었다(森裕城, 2012: 58). 1980년대 이후 총리 직속의 ‘임시교육심의회(임교회)’는 정치 주도의 고등교육 정책의 중심이 되었다(大学改革支援·学位授与機構, 2014).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한 교육 개혁하에서 교육 방침은 여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었다.

한편 일본의 글로벌인재 육성은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계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산-학 연대로 추진되었다(西村政子·趙彩尹, 2022: 23). 그러나 관-산-학의 삼각 파트너십에 기초한 글로벌인재 정책에 참여하는 정책 주체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었다. 재계의 요구에 이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이념 설정과 상명 하달식 정책 과정에서 실행자로서의 대학(교육)이 참여하였다. 문부행정으로 하달된 글로벌인재의 자질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 주도의 관리와 규제적인 지원제도하에서 대학은 자기평가와 자기검열을 하면서 국가와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형 인재 양성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가 글로벌인재 담론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勝又美智雄, 2018: 395, 397).

이러한 단선적인 정책 경로는 일본의 글로벌인재 정책을 영어 실력과 같이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능력을 특화한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인재상으로 전환시키고, 글로벌인재 정의를 제한적이고 경직된 기업 친화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환원시켰다. 시장 중심 경제와 경쟁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인적자원인 글로벌인재의 속성은 과거 국제인보다 더욱 정밀하고 구체적인 자질을 탑재한 인간형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구체성 속에서 글로벌인재는 국내 기업이 선호하는 회사원으로 이미지화되었다. 카쓰마타(勝又美智雄, 2018)는 “재계는 글로벌인재의 양성에 관심이 있기보다 와카모노(청년)들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업무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대학에서 갖추기를 바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勝又美智雄, 2018: 396-397). 이처럼 글로벌인재 정책은 유연한 인재상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부합하는 특정 유형의 인재

양성에 편중되었다. 따라서 글로벌인재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영어 능력을 기준으로 한 표준화된 일본의 인재상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글로벌인재의 의미를 제한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글로벌인재가 창의적, 주체적, 자발적인 기업가적 자아로서 실용적 기능을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지만, 일본의 현실적 맥락에서 자기 기업가적 주체의 자질을 갖춘 인재상의 실현은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기업가적 주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經濟産業省, 2012, 2020).<sup>8</sup> 그리고 글로벌인재라는 이름하에 재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실용적, 기능적인 피고용인으로서 기업 중심주의적 이념을 내면화하는 고등교육 과정을 통과한 와카모노(청년)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인재 담론이 여전히 사라리만형 인재의 표상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기업가적 자아는 여전히 회사형 인재모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형에게 요구되는 주체성, 창의성, 능동성이라는 자질은 역설적으로 주체적이지도 창의적이지도 않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부과된’ 자격에 그치게 된다.

### 3. 지역화된 인재: 정책 목표의 굴절

일반적으로 글로벌인재를 의미하는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나 글로벌 탤런트(global talent)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글로벌한 시각, 타 문화에 대한 지식,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힘”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질을 강조하는 일본의 글로벌인재 정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인재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Olsen, 2013 발표문). 또한 일본의 글로벌인재 정의가 “자기 주도성, 긍정성, 도전정신, 협력, 융통성, 책임감”이라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글로벌 리더나 글로벌 탤런트의 그것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sup>8</sup> 기업가적 주체를 강조하지만, 전통적으로 일본의 창업가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經濟産業省, 2020).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가 2012년에 5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창업기회에 대한 질문에 중국(74.9%), 미국(67.2%)이 1, 2위를 다투는 가운데, 일본의 기업가의 의식은 10.6%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經濟産業省, 2012).



이러한 정의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본의 글로벌인재는 ‘지역화’ 혹은 ‘일본화’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즉 글로벌인재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혹은 세계에서 활약하는 인재를 의미한다면, 일본의 글로벌인재는 정책화 과정에서 일본에서 활약하는 ‘일본형 인재’를 의미하게 되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글로벌인재 정책 과정이 재계, 정부, 학계로 이어지면서 글로벌인재의 자질은 일본 재계가 요청하는 ‘사회인 기초력’처럼 기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되었다. 모리야(守屋貴司, 2020)는 현재 일본 사회에서 글로벌인재가 “일본 기업에 취직하여 공헌할 수 있는 인재상”이라는 매우 좁은 의미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守屋貴司, 2020: 17). 그에 따르면, 일본의 글로벌인재는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여지는 타문화에 대한 적응력과 공공성을 전제하는 글로벌 리더나 글로벌 탤런트의 의미와 다르다. 즉 글로벌 리더나 글로벌 탤런트가 주로 공공성과 직무와 직접 연결되는 “능력과 행동”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일본의 글로벌인재는 “소속 기업 조직”의 요구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守屋貴司, 2016: 31).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에서 글로벌인재는 “일본의 민간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라는 의미에 그치게 된다.

한편 국가 주도의 글로벌인재 정의는 지역사회의 단위에서 활동하는 인재로 재맥락화되어 해석되고 있다. “지역의 국제화 정책”에서 지역 사회는 정책의 최전선에서 일본 안에서의 국제교류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집중하는 ‘내향적 국제화’의 주체로 간주되어 왔다. 1989년 일본 정부는 “지역의 국제교류 추진 지침”을 통해 국제교류의 목적을 지역 정체성 확립, 지역 활성화, 지역주민의 의식개혁, 그리고 상호 이해 심화로 제시한 바 있다(自治省, 1989). 이처럼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책을 지역 사회와의 연관성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글로벌인재를 “국제적 시야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국제적 인재”로 이해한다. 국제적 시야를 가진 글로벌인재의 종착지 혹은 목적지가 일본 내의 지역 사회에 한정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글로벌인재의 의미는 이미 내향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인재의 역할과 글로벌함의 의미를 일본 국내와 지역 수준에서 활약하는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이 표방한 당초의 목표와 달리 글로벌인재는



일본 내에서 통용되는 인재상에 머무르게 되었다.

## VI. 나가며

전 지구화 과정에서 ‘제3의 개국’ 담론은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책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모형을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일본인 상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의 국제화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제국가 일본’을 실현하기 위해 달성되어야 할 목표였다(Kato, 1992: 311). 유사한 맥락에서 2010년대 이후 글로벌화 정책은 국가적 비전으로서 전 지구적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글로벌 일본’의 열망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정부 주도로 전개된 국제인과 글로벌인재 정책은 전 지구화 과정에서 노정된 사회적 긴장과 불안을 낮추는 한편, 일본인임을 재구성하기 위한 글로벌 일본인론이다.

글로벌 일본인론의 관점에서 국제화 정책과 국제인 담론은 1970~1980년대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본(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등장하였다. 일본(인)의 저력에 기반한 자신감 위에서 국제적 마인드를 강조한 국제인 캠페인은 일본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국제인 양성은 일본 정부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을 관객으로 하고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한 국가 기획이었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인 종족 정체성에 기반한 단일 사회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수준에서 ‘국제적인 일본인’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비해 글로벌인재 육성정책은 일본 국내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일본재흥을 위한 정치·경제적 담론 위에서 나타났다. 글로벌인재 정책 담론은 글로벌화하는 국제 질서 안에서 일본의 개국에 직면한 현재적 궁지와 위기를 인식하고, 버블 경기 이후 침체된 일본의 재흥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일본(인)다움을 구성하고자 했다. 일본재흥을 목표로 한 글로벌인재 담론은 일본의 주변성과 열등성과 같은 부정적인 일본인에 근거하기보다, “1990년대의 좌절”에서 벗어나 ‘유실된’ 경제 대국으로서의 국가적 정체성을 되찾기(재흥)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영어 실력을 기본으로 하여 추상적 수준에서 일본적임을 소환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역설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성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인재 정책은 국제인 담론의 연속선 위에 있다. 그러나 국제인 담론이 전 국가적 캠페인으로서 전 일본인의 국제화 마인드 탑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글로벌인재 담론은 와카모노(청년)라는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현재 일본 사회에서 필요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가적, 기능적, 효율적, 경쟁력 있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일본의 글로벌인재 정책은 당초 일본인 와카모노(청년)를 주 대상으로 하였지만, 외국인 글로벌인재 수용정책으로 확대해 왔다(經濟団体連合会, 2011: 2; 文部科学省, 2008; 総務省, 2017, 2019; 自治体国際化協会, 2021). 이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 유학생과 같은 외국인 고도 인재뿐만 아니라 비전문, 저숙련 외국인 와카모노(청년)를 글로벌인재로 범주화하며 수용하고 있다. 외국인 청년 노동자를 인재로 범주화하며 글로벌인재의 한 축으로 수용하는 것이 곧 이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전반적으로 변화하였다거나, 일본인임과 외국인임을 가르는 종전의 종족적 범주가 전면적으로 유연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외국인 와카모노(청년)를 인재로서 포섭하려는 시도는 일본재흥의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 노동인구의 수용 기준과 폭이 다소 유연화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사회 내에서 최근 외국인 인재 범주의 확대와 수용은 일본사회의 내적 글로벌화, 즉 인구 구성과 사회의 다양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리고 외국인 글로벌인재의 새로운 범주화는 지금까지 일본의 맥락에서 정의되고 지역화한 글로벌인재 개념을 재고하게 할 것이다. 전 지구화라는 역사적 국면에서 국가적 곤경의 극복과 부활이라는 수사로서의 제3의 개국 담론을 기반으로 재등장한 일본인론이 일본 사회 내부의 진전된 글로벌화와 다양성 논의 속에서 일본인의 정체성 구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 참고문헌

### 자료

- 安倍晋三. 2006. “第165回国会安倍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 \_\_\_\_\_. 2015. “第190回国会における安倍内閣総理大臣の施政方針演説.”
- 菅直人. 2011. “菅総理 外交に関する講演「歴史の分水嶺に立つ日本外交」.”
- 経済産業省. 2010a. “産学官でグローバル人材の育成を.” 『産学人材育成パートナーシップでグローバル人材育成委員会報告書』.
- \_\_\_\_\_. 2010b. “社会人基礎力.”
- \_\_\_\_\_. 2012, 2020. “起業家精神に関する調査.”
- 経済団体連合会. 2000. “グローバル化時代の人材育成について.”
- \_\_\_\_\_. 2007. “希望の国、日本.”
- \_\_\_\_\_. 2011. “グローバル人材の育成に向けた提言.”
- 国立教育行政政策研究所. 2018. “日本の高等教育政策小史 大学教育の質保証の視点から.”
- グローバル人材育成推進会議. 2012. “グローバル人材育成戦略.”
- 産業能率大学. 2017. “第7回新入社員のグローバル意識調査.”
- 首相官邸. 2012. “グローバル人材育成戦略.”
- 自治省. 1989. “地域国際交流推進大綱の政策に関する指針について.”
- 自治体国際化協会. 2021. “外国人技能実習制度」に関する人材送出しの現状と課題: ベトナム・インドネシア・ミャンマー・インド.” Clair Report No. 506(February 22, 2021).
- 総務省. 2017. “グローバル人材育成の推進に関する政策評価: 結果に基づく勧告.”
- \_\_\_\_\_. 2019. “高度外国人材の受入れに関する政策評価書(要旨)”(令和元年 6月).
- \_\_\_\_\_. 2020. “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推進プランの改訂について.”
- 大学改革支援・学位授与機構. 2014. “日本の高等教育政策小史: 大学教育の質保証の視点から.” 大学教育の質保証研修 발표문.
- 内閣府. 2002. “グローバル化の新たな課題と構造改革.” 『平成16年度年次経済財政報告』.
- \_\_\_\_\_. 2012. “第1章新しい事業の創出.” 『経済活性化のために重点的に推進すべき規制改革』.

- \_\_\_\_\_. 2013. “今を生きる若者の意識: 国際比較から、みえてくるもの.” 『平成26年版自己肯定子ども・若者白書』.
- \_\_\_\_\_. 2019. “日本の若者意識の現状: 国際比較からみえてくるもの.” 『令和元年子供・若者百書』.
- \_\_\_\_\_. 2022. “日本の若者意識の現状: 国際比較からみえてくるもの.” “グローバル社会で活躍する人材の育成.” 『令和4年版子供・若者白書』.
- 中曽根康弘. 1986. “第11代 中曽根 康弘; 中曽根 演説文”(1986年 6月 29日).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 21世紀日本の構想懇談会. 2000. “21世紀日本の構想: 日本のフロンティアは日本の中にある: 自立と協治で築く新世紀”, “英語の第二公用語化についての提言.”
- 日本学術会議. 2017. 『若者支援政策の拡充に向けて』.
- 日本経済新聞. 2013. “大学生、留学「意向なし」4割: 強い内向き志向”(2013年8月18日).
- 日本再興戦略. 2013. 『これまでの成長戦略について』.
- 文部科学省. 2000. “グローバル化時代に求められる高等教育の在り方について(答申).”
- \_\_\_\_\_. 2002. “「英語が使える日本人」の育成のための戦略構想の策定について.”
- \_\_\_\_\_. 2008. “「留学生30万人計画」骨子の策定について.”
- \_\_\_\_\_. 2011. “産学官によるグローバル人材の育成のための戦略.” 産学連携によるグローバル人材育成推進会議.
- \_\_\_\_\_. 2012. “平成24年度「グローバル人材育成推進事業」の採択事業の決定について.”
- \_\_\_\_\_. 2022. “「外国人留学生在籍状況調査」及び「日本人の海外留学者数」等について.”
- 文部省. 1981. “学制百年史.” 『臨時教育会議と教育改善策』.
- \_\_\_\_\_. 1992. “第十一章 教育・文化・スポーツの国際交流.” 『学制百二十年史』.
- 読売新聞. 2019. “海外留学興味なし、日本の高校生「内向き志向」”(2019年6月26日).
- NHK放送文化研究所. 2018. “第10回「日本人の意識」調査結果の概要.”

## 논저

- 김종식. 2007. “와카모노(若もの)에서 청년으로.” 『근대일본 청년상의 구축』. 선인.
- 나카네 지에(中根千枝) 저. 양연혜 역. 2005. 『일본사회의 인간관계』. 소하.
- 박경민. 2014. “정책으로서의 ‘다문화공생사회’ 이념과 다문화공생 프로젝트의 지역적 존재방식.” 『한국문화인류학』 47권 1호, 85-134.
- \_\_\_\_\_. 2019. “일본의 국제화 정책과 지역의 ‘국제화하기’: 정책 인류학적 관점.” 『비교문화연구』 25권 2호, 49-102.

- \_\_\_\_\_. 2021. “글로벌 마치즈쿠리 일상적 시민 공간으로서의 자발적 시민 결사체: 일본의 글로벌 마치즈쿠리 프로젝트와 시민참여 경험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54권 1호, 123-179.
- 박규태. 2019. “‘일본문화론’의 관점에서 본 아마모토 시치헤이의 「일본자본주의의 정신」.” 『비교일본학』 47권, 111-146.
- 빌리그, 마이클(Billig, Michael) 저. 유충현 역. 2020. 『일상적 국민주의』. 그린비.
- 사이토 준이치(齋藤純一) 저. 윤대석·류수연·윤미란 공역. 2009.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과 아렌트를 넘어서』. 이음.
- 오대영. 2011. “일본 대학의 구조조정 역사와 사립대 현황.” 『대학교육』 714권, 70-76.
- 요시노 고사쿠(吉野耕作) 저. 김태영 역. 2001. 『현대 일본의 문화 내셔널리즘』. 일본어뱅크.
- 조문영. 2018. “윤리적·창의적 기업이 주체의 정치적 재구성: 중국 도시 청년들의 사회혁신(창신) 창업활동에 대한 일고찰.” 『한국문화인류학』 51권 1호, 3-50.
- 푸코, 미셸(Foucault, Michel) 저. 오트르망 역. 2004. “9강 1979년 3월 14일.”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 301-331. 난장.
- 市村光之. 2018. “海外で活躍する「グローバル人材」に求められる要件の構造(海外駐在経験者へのインタビュー調査から).” 『グローバル人材育成教育研究』 5卷 2号, 1-12.
- 岡本智周·笹野悦子. 2001. “戦後日本の「サラリーマン」表象の変化: 『朝日新聞』を事例に.” 『社会評論』 52卷 1号, 16-32.
- 片野田優子. 2015. “戦後日本の国際交流と地域社会: 鹿児島県内自治体の地域間国際交流の事例を中心として.” 鹿児島大学 地域政策科学専攻.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勝又美智雄. 2018. “グローバル人材の育成を求める戦後教育改革の流れ.” 글로벌人材育成教育が会 編集. 『グローバル人材育成教育の挑戦: 大学・高校での実践ハンドブック』, 388-400. IBCパブリッシング.
- \_\_\_\_\_. 2019. “「国際化」の時代から「グローバル人材」育成に向けて.”
- 木村有伸. 2015. “1970・80年代の「国際人」における日本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操作について: れいべリング理論の枠組みを用いて.” 『日本語文学』 69号, 291-314.
- 小川豊武. 2014. “戦後日本における「青年」「若者」カテゴリー化の実践: 1950~60年代の新聞報道を事例として.”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No. 84, 89-107.
- 齊藤孝. 2013. 『若者の取扱説明書「ゆとり世代」は、実は伸びる』. PHP研究所.
- 新保生一. 1994. 『第3の開国を目指す日本経済: 進化する日本型資本主義』. 東洋経済

新保社.

- 末廣昭・園田茂人. 2012. “日本社会のガラパゴス化を考える.”『学術の動向』17巻 2号, 60-65.
- 高橋正樹. 2001. “「社会的表象としてのサラリーマン」の登場: 戦前俸給生活者の組合運動をどう見るか.”『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No. 511, 16-30.
- 田中圭治郎・ナカニシマ. 2003. “日本の国際化と国際理解・理分理解教育.”『多文化教育の世界的潮流』, 126-137. 京都: ナカニシマ出版.
- 田中浩. 2003. 『第三の開国』は可能か. NHKライブラリ. Tokyo: NHK出版.
- 東條加寿子. 2010. “大学国際化の足跡を辿る: 国際化の意義を求めて.”『大阪女学院大学紀要』7号, 87-101.
- 戸田貴子. 2015. “グローバル人材育成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役割: 世界をつなぐネットワークの活用.”『東南アジアの日本語教育の役割: グローバル人材育成とつながるネットワーク』, 2015年ホーチミン市日本語教育国際シンポジウム.
- 夏井丈俊. 2012. “「グローバル人材」を取り巻く環境と今後について.”『大学マネジメント』7巻 11号, 6-10.
- 難波功士. 2004a. “「若者論」論.”『社会学部紀要』97巻, 141-148.
- \_\_\_\_\_. 2004b. “戦後ニュース・サブカルチャーズについて(1): 太陽族からみゆき族へ.”『社会学部紀要』96巻, 163-178.
- \_\_\_\_\_. 2004c. “戦後ニュース・サブカルチャーズについて(2): フーテン族からアンノン族へ.”『社会学部紀要』97巻, 41-56.
- 西村政子・趙彩尹. 2022. “日本の大学におけるグローバル人材育成の現状と課題: 外なる国際化及び内なる国際化を中心に.”『教育経済学研究』Vol. 1, 12-25
- 野澤和典. 1998. “国際人・異文化人間の条件とは.”福岡教育大学講演資料, 1-7.
- 野村総合研究所. 2015. 『2015年の日本: 新たな「開国」の時代へ』. 東京: 東洋経済新聞社.
- 船曳健夫. 2010. 『「日本人論」再考』. 東京: 講談社.
- 藤山一郎. 2012. “日本における人材育成をめぐる産官学関係の変容: 「国際人」と「グローバル人材」を中心に.”『立命館国際地域研究』36巻, 125-142.
- 古市憲寿. 2011. 『絶望の国の幸福な若者たち』. 東京: 講談社.
- \_\_\_\_\_. 2015. “「若者論」の終焉、あるいは始まり: 討論者の立場から.”『学術の動向』20巻 1号, 40-45.
- 堀井恵子. 2014. “グローバル人材育成のためのビジネス日本語教育: ある日ビジネス日本語を教えてと言われたら.”『2014年度第3回日本語教育研修会報告書』. ホー

- チミン市師範大学 9月 19日 シンポジウム講演会.
- 丸山眞男. 1998. 『丸山眞男講演録』〈第4冊〉日本政治思想史 1964, 191-237.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 松井一彦, 2020. “コロナの時代におけるグローバル人材育成: 大学等を中心に.” 『立法と調査』 No. 429: 72-87.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特別調査室.
- 松本健一. 1994. “日本にとって開国とは何だったか.” 『開国のかたち』, 307-318. 東京: 岩波書店.
- \_\_\_\_\_. 1995. 『第三の開国』の時代に, 中央公論社.
- \_\_\_\_\_. 2007. “第4話: 「安倍氏が掲げる『美しい国』とは『誇り』である」” <https://www.genron-npo.net/politics/archives/512.html>(검색일: 2022. 5. 20.)
- 森裕城. 2012. “新自由主義的教育改革の政治過程とその分析視角.” 『年報政治学 2012-II 現代日本の団体政治』, 42-64. 東京: 木鐸社.
- 守屋貴司. 2016. “日本における「グローバル人材」育成論議と「外国人高度人材」受け入れ問題: 日本多国籍企業のタレントマネジメントとの関わりから.” 『社会政策』 8巻 1号, 29-44.
- \_\_\_\_\_. 2020. 『人材危機時代の日本の「グローバル人材」の育成とタレントマネジメント—「見捨てられる日本・日本企業」からの脱却の処方箋』, 京都: 晃洋書房.
- 柳沢美和子. 2021. “日本語教育を通じたグローバル人材論: スーパーグローバル大学の英語学士プログラム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現状.” 『留学交流』 118巻, 11-22.
- 祐乗坊ジョディー由利. 2019. “Reconceptualizing ‘Global Jinzai’ from a(B)ELF Perspective.” ELF The Center for English a Lingua Franca Journal 5巻, 11-22.
- 吉田文. 2014. “「グローバル人材の育成」と日本の大学教育: 議論のローカリズムをめぐって.” 『教育学研究』 81巻 2号, 28-39.
- Olsen, Jasse E. 2013. “海外の視点から見たグローバル人材.” 西日本第1ブロック共同ワークショップ 발표문(2013. 11. 23.).
- Befu, Harumi. 1993. “Nationalism and Nihonjinron.” In Harumi Befu, ed. *Cultural Nationalism in East Asia: Representation and Identity*. Research Papers and Policy Studies. no. 39.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_\_\_\_\_. 2001. “Japan and the West: Mutual Misunderstanding.” In Harumi Befu. *Hegemony of Homogeneity: an Anthropological Analysis of Nihonjinron*, 1-15. Melbourne: Trans Pacific Press.



- Burgess, Chris. 2015. "To Globalise or not to Globalise? 'Inward-looking Youth' as Scapegoats for Japan's Failure to Secure and Cultivate 'Global Human resources'."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13(4), 487-507.
- Castells, Manuel. 2006. "Globalisation and Identity: A Comparative Perspective." *Transfer: Journal of Contemporary Culture*, 56-67.
- Chapple, Julian. 2014. "'Global Jinzai', Japanese Higher Education and the Path to Multiculturalism: Imperative, Imposter or Immature?" *Working Paper 25*. Shiga: Afrasia Research Centre, Ryukoku University.
- Ganti, Tejaswini. 2014. "Neoliberalism."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3, 89-104.
- Goodman, Roger. 2007. "The Concept of Kokusaika and Japanese Educational Reform." *Globaliz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5(1), 71-87.
- Grimes-MacLellan, Dawn. 2017. "Inward-looking Youth or Cost-Conscious Consumers?" In John L. Plews and Jane Jackson, eds. *Study Abroad to, from, and within Asia*, 147-174. Meiji Gakuin University.
- Hermans, Hubert and Agnieszka Hermans-Konopka, 2010, "The Impact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on Self and Identity." *Dialogical Self Theory: Positioning and Counter-Positioning in a Globalizing Society*, 21-8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rie, Miki. 2002.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Japan in the 1990s: A Reconsideration." *Higher Education* 43, 65-84.
- Kato, Shuichi. 1992. "The Internationalization of Japan." In G. Hook and M. Weiner, ed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Japan*, 310-316.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elly, William. 1991. "Directions in the Anthropology of Contemporary Japa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0, 395-431.
- Liddicoat, Anthony J. 2007. "Internationalising Japan: Nihonjinron and the Intercultural in Japanese Language-in-education Policy." *Journal of Multicultural Discourses* 2(1), 32-46.
- McConnell, David. L. 1999. *Importing Diversity: Inside Japan's JET Program*.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ouer, Ross and Yoshio Sugimoto. 1986. *Images of Japanese Society*. London: Kegab Paul International.

- Oliver, Chris. 2009. "Kokusaika. Revisited: Reinventing 'Internationalization' in Late 1960s Japan." *Sophia Junior College Faculty Journal* 29, 47-54.
- Sarup, Madan. 1996. "National Identity: 'Englishness' and Education." In *Identity. Culture and The Postmodern World*, 130-136. Edinburgh: Endinburgh University Press.
- Shore, Cris and Susan Wright. 1997. "Policy: A New Field of Anthropology." In Cris Shore and Susan Wright eds. *Anthropology of Policy: Critical Perspectives on Governance and Power*, 3-39.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9. "Audit Culture and Anthropology: Neo-Liberalism in British Higher Education." *Journal of Royal anthropology* 5(4), 555-575.
- \_\_\_\_\_. 2011. "Conceptualising Policy: Technologies of Governance and the Politics of Visibility." In Cris Shore, Susan Wright, and Davide Però. eds. *Policy World: Anthropology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Power*, 1-25. Oxford and New York: Berghahn Books.
- Sugiyama, Yasushi. 1992.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of Internationalization." In G. Hook and M. Weiner, ed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Japan*, 72-103.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Wedel, Janine R., Cris Shore, Gregory Feldman, and Stacy Lathrop. 2005. "Toward an Anthropology of Public Polic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00, 30-51.
- Wright, Susan and Sue Reinhold. 2011. "'Studying through': A Strategy for Studying Political Transformation. or Sex. Lies and British Politics." In Cris Shore, Susan Wright, and Davide Però, eds. *Policy Worlds: Anthropology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Power*, 86-104. Oxford and New York: Berghahn Books.
- Yoneoka, Judy. 2000. "What Is a Kokusaijin? A 10 Year Study." *The Language Teacher* 24(9), 7-13.
- Yonezawa, Akiyoshi. 2014. "Japan's Challenge of Fostering 'Global Human Resources': Policy Debates and Practices." *Japan Labor Review* 11(2), 37-52.

## Abstract

## ‘The Third-Opening of Japan’ for Revival and a Global Nihonjinron: A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ized Person and Global Talent Projects

Kyungmin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ost-bubble Japan’s efforts to redesign a state model and a national identity in the global era, by looking at the policies of ‘Internationalized Person’ (*kokusai-jin*) and ‘Global Talent’ (*gurobaru-jinzai*). The introduction of a market-oriented economic system to Japan and the high visibility of foreign-born population in the public life have led to social unrest and identity crisis in this society. It has accompanied with the current predicaments including a technological stagnation, an inward-looking social orientation, and human resource shortages as well. All of these have required to give a new explanation for “what Japanese-ness is.” The study considers the national project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as part of the oft-stated discourse of “Third Door-Opening of Japan” for decades that is a recurring political rhetoric at a moment of national crisis in this society, aiming for the restoration of Japan. I call the discourses of human resources in the contemporary Japan derived from the policie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as a Global Nihonjinron that is a state-led explanation to redefine the urgent social crisis and Japanese-ness in the global era. With this, I critically review Internationalized Person campaign and Global Talent policy, by discussing a shift in the concept of the Japanese human resources as part of *Global Nihonjinron*: from *sarariman* who is a Japanese white-collar male regular worker

represented the Japanese Developmental State to an entrepreneurial-self under the rubric of neoliberalism. I also examine *wakamono*, Japanese youth, who has been named as not only the target subject of the Global Talent policy but also the main culprit in the current inward-looking mood of the society. This study argues that there has been some deflections in the policy process for the Global Talent all the way: the ever-present idea of the boundary of “Japaneseness” in the state-led projects has connoted the introverted tendency in it already. In addition, the absence of “down-to-earth youth” and the prioritization for “business-friendly employees” in the policy process have restricted the positive potential of global talents in Japan.

**Keywords |** Third-opening of Japan, Internationalized Person (*kokusaijin*), Global Talent, Revival of Japan, *Global Nihonjinron*, National identity, *Wakamono* (Japanese youth), Higher Education Reform